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조계종 포교원 · 현대불교 연동캠페인

조건없는 사랑으로 베풀며 살아야

우리말 꼭꼭 씹어 먹기

말을 하다보면 '이런 말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쓰이게 된 것일까?' 궁금해질 때가 있지요. 그 뜻이나 사정을 알게 되면 그 말의 쓰임을 더욱 분명하게 알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 텐데요. 당분간 단어의 의미와 쓰임새를 중심으로 공부해 볼까요?

어처구니 : (주로 '없다'의 앞에 쓰여) 상상 밖의 엄청난 나쁜 일이나 사물을 어처구니라고 합니다. 어이없다와 비슷한 말이지요. 또한 흔히 가정에서 쓰는 분쇄기가 없던 시절, 곡식을 갈 때 쓰는 맷돌이 있습니다. 그 맷돌을 손으로 돌릴 때 쓰는 나무 손잡이의 명칭이 바로 어처구니입니다. 맷돌을 돌릴 때 손잡이가 없다면 맷돌을 돌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참 어이없는 일이 아니겠어요. 어처구니없는 맷돌이 되는 것이죠.

개밥에 도토리 : 개들은 밥그릇에 떨어진 도토리를 먹지 않습니다. 밥만 먹기 때문에 결국 밥그릇에는 도토리만 남게 되는데, 그 모양이 마치 도토리가 파들림을 당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죽에 끼지 못하고 파들림을 당하는 사람'을 '개밥에 도토리'라고 합니다. 즉 "내가 없으면 너희들은 개밥에 도토리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활개치다 : 거리낌 없이 마음껏 활동하다. 새의 두 날개나 사람의 두 팔을 가리켜 '활개'라고 합니다. '활개치다'는 새나 사람이 활개를 치듯이 의기양양하게 노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은 반에서 누가 가장 활개치고 다니는지 한번 관찰해 보세요.

인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논술의 자신감 이 책은 꼭 읽어야 해

틀스토어작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는 오랜 세월을 걸쳐 민간에서 전해 내려오던 러시아의 옛날이야기를 러시아의 대문호 틀스토어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엮은 민담집이요, 이 작품은 틀스토어 스스로가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리나> 등의 대작 이상으로 각별히 아꼈다고 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는 1881년 작품으로 기독교적 인간애와 도덕적 자기완성이라는 '틀스토이주의' 견해가 잘 나타나 있는 작품이지요.

「사람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천사 미하일은 이 세 가지 질문의 답을 깨달은 후에야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채, 추운 겨울 벌거벗은 채로 지상에 떨어지게 된다.

절망하여 쓰러져 있던 미하일 앞에 낯은 외투를 입고 나타난 세몬은 자신의 옷을 벗어 미하일에게 입혀주고, 자신의 구두를 벗어 신겨준다.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미하일을 데려오게 되고, 당장 내

일 아침 자신들의 먹을거리도 없으면서 자신을 보살펴주는 마뜨료나의 얼굴에서 미하일은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마뜨료나의 얼굴에서 '사랑'을 보게 된 것이다.

세몬과 함께 구두 만드는 일을 하게 된 미하일은 1년이 지나도 해지지 않는 구두를 주문하는 한 건강해진 남자의 뒤에서 그를 데려가기 위해 서 있는 천사를 발견하게 되고, 그 순간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다. 튼튼한 구두를 주문했으나 정작 그 남자는 그 구두가 필요가 없다. 그

삶의 궁극적 가치 새기며 쉽게 읽을 수 있는 민담집 인간의 존재 이유 묻게 돼

는 관속에서 신을 슬리퍼 한 짝이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의 의미...그것은 바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는 지혜가 없다는 것이다.

세몬의 집에 한 부인이 쌍둥이를 데리고 신발을 맞추러 오면서 미하일은 하나님의 세 번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그 쌍둥이들의 어머니는 아이들을 낳자마자 죽어버렸는데, 그 어머니의 영혼을 미하일이 거두어오라는 명령을 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이 죽어 남겨지게 되는 쌍둥이들의

걱정 때문에 미하일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가 땅으로 떨어지는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쌍둥이는 자신의 아들을 잃어버렸던 이웃집의 착한 여인에 의해 보살피고 있었다.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던 것이다. 미하일은 3가지 질문의 답을 찾게 되고 자신이 천사임을 세몬의 가족에게 말하곤 얼은 미소를 띠며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고 그 사람들의 사랑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쳐 쓰러지려고 할 때, 나를 사랑해주는 이들의 마음으로 힘을 내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잘나도 혼자서는 살 수 없지요. 더불어 서로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야겠지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각자 자신을 걱정함으로써 살아 갈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착각일 뿐 진실로 인간은 오직 사랑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부처님은 중생에 대한 끝없는 사랑으로 그토록 친절한 가르침을 베풀셨잖아요.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 스스로에게 갖춰진 자비와 지혜의 보물을 꺼내 이웃과 나눠 쓰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지금 여기에 왜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반면, 자신에게는 중요한 '그 무엇'이 있음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인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우리들 생각

「우리들의 생각」 코너는 사찰 게시판에 올라온 어린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은 공간입니다. 불교계에 바라는 점, 입사상담과 교우문제 등 주제 · 형식을 벗어나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 e-메일:rolling@paran.com)

부모 이혼, 아이들이 알면 어찌

고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초등학교 때 이혼하셨어요. 저는 부모님이 이혼하셨다는 사실이 너무 싫어요. 그래서 늘 부모님들이 이혼한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까봐 걱정이에요. (ID:000900)

인정하고 밝고 당당하게 생활하세요

친구가 많이 힘들군요. 부모님들의 이혼이 친구 잘못도 아닌데 주변 사람들이 부모님의 이혼을 알게 될까봐 불안하고 걱정되시지요?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적절한 방법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친구에게는 자신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으며 이 모두를 통합적으로 지각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신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진다고 합니다. 자신의 문제나 열등감을 피하거나 거부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극복해 나갈 때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질 수 있게 되지요. 부모님의 이혼이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이지만 그것으로 인해 계속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더 좋지 못한 일인 것 같아요. 그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고 해보세요.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한결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부러 알릴 필요는 없지만 숨기려고 안절부절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 알아도 상관없다는 마음을 가지려고 해보세요. 부모님의 이혼을 언제까지 열등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그 문제에서 자유로워지고 또 이럴 때일수록 더 건강하고 밝고 당당하게 생활하려고 애쓰세요.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생활을 해 나간다면 세상의 어떤 사람도 친구를 비난하거나 싫어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대견하게 보겠지요. 힘내세요!! (한마음상담연구소)

The comic strip is divided into three main sections. The first section introduces the author, Leo Tolstoy, and his book 'How a Man Lives'. It mentions that Tolstoy was a great writer and that the book is a collection of folktales. The second section discusses the book's themes, particularly the concept of love and the importance of faith. It shows a character reflecting on the meaning of life and the role of God. The third section focuses on Tolstoy's personal life and his spiritual journey. It describes how he struggled with his own sins and how he eventually found peace and happiness through his faith in God. The comic uses simple illustrations and speech bubbles to convey these ideas in an accessible way.

불기 2551년 부처님 오신날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부산 안국선원 전경

"좋은 인연입니다"

(재)대한불교조계종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

사부대중일동